

삶이 머무는 영원한 고향

김기찬 《골목안 풍경》



· 왼쪽 서울 천호동(1980년 9월).
· 오른쪽 서울 죽림동(1981년 12월).

급변하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도 놀랍도록 변하지 않는 서울의 뒷골목에는 서민들의 피곤한 삶이 서려 있다. 낡은 슬레이트와 퇴색한 시멘트 블록, 그리고 너절한 판자로 둘러싸인 골목에는 빈곤한 일상이 있다. 20여년 동안 우직스럽게 서울의 골목 풍경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습을 담은 김기찬(61)은 《골목안 풍경》(열화당) 시리즈를 통해 산업화에 밀려난 서울 특별시민들의 서글픈 삶을 들춰낸다.

좁다란 골목으로 햇살 한 뼘 비치면 노인들은 문가에 나와 앉아 즐고 살갓 맞대고 모여 앉은 아주머니들은 결박한 입담을 풀어놓는다. 지루한 한낮을 보내기 위해 강아지와 함께 골목 안을 어슬렁거리던 아이들

은 악의 없는 싸움질을 해댄다. 어쩌다 옛 장수 혹은 뽕튀기 장수라도 나타나면 골목은 아이들 세상으로 변한다. 깨진 독을 때우는 독장수와 연탄 지게를 짊어지고 가파른 골목으로 들어서는 연탄장수,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 물건을 들고 나타난 방물장수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다.

의자 하나에 이발소가 되고 물통 하나에 수영장이 된다. 마대자루 혹은 신문지 한 장 펼치면 훌륭한 휴식처가 된다. 그것마저 없으면 처마 아래 늘어진 그림자를 돛자리 삼아 한여름 낮잠을 청한다. 그렇게 골목은 길이자 방으로 또는 공회당으로 서민들만의 정겨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골목은 서민들에게 서글픈 꿈이

휘발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방에서 유입되고 도시화에 밀려난 서민들이 함께 뒤엉켜 살아가는 그곳에는 기억 없는 풍요를 꿈꾸는 사람들로 만원이다. 지금은 비록 허름한 뒷골목에서 살아가는 서울 특별시민이지만 언젠가는 화려한 도시의 주인공이 될 염원을 잉태하는 자궁같은 곳이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삶이 머무는 영원한 고향이기도 하다.

서울의 뒷골목 풍경을 통해 인간군상의 서글픈 삶의 뒤안길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온 작가는 사진집으로 《골목안 풍경 1972~1988》(열화당), 《골목안 풍경 1984~1990》(열화당) 등을 연작으로 남겼다.

—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37호 / 1998년 6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증환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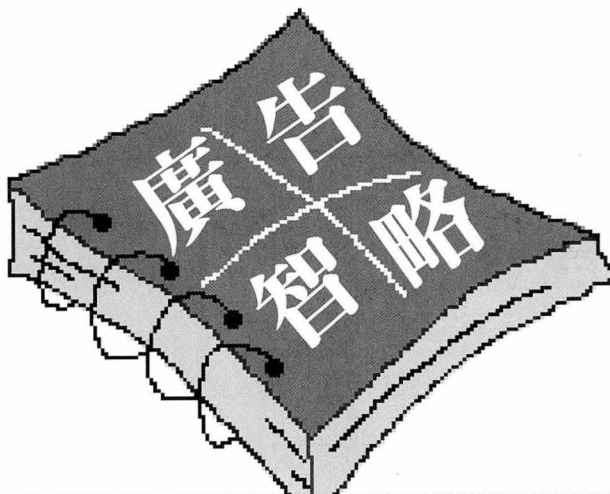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진흥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보다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은 어려운 출판계의 현실을 《출판저널》 광고지략으로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